

진보개혁 진영 大選 세력화 '시동'

진보개혁 진영이 최근 가장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을 발족하기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하는 등 대선 대응 행보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김성중 광주시민협 대표, 정대화 상지대 교수, 지금중 문화연대 사무총장 등 진보개혁 인사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강진·해남·대전·광주·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진 뒤 최근 새로운 정치운동조직으로서 '미래구상'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내부토론을 통해 퇴행적 보수화를 차단하려면 극좌·극우를 넘어서는 합리적 신진보세력이 결집해 대선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간의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뤄 진보개혁

최열·정대화씨 등 미래구상 전국모임 발족 정권 창출 방안·제3의 대선 후보 추진 주목

혁신세력이 정권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조만간 전국 단위의 정치운동 조직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래구상은 이를 위해 12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에 걸쳐 서울 조계사 대강당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한국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구상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3의 대선 후보로 회자되고 있는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나간재 전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시민사회 진영의 대선 대응에 대한 자

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래구상은 또 지난 2일 이번 대토론회 제안자로 전국 각지의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핵심 간부 93명을 적시했다. 이들은 그간 논의 과정에서 미래구상의 취지에 대체로 동감하거나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에 동의한 인사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토론회 취지문을 통해 "그동안 괴팍으로 쌓아온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진보의 가치가 훼손되고 희화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대선을 맞게 됐다"면서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느냐 심화되느냐,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느냐 전쟁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구상에서 밝힌 취지문 등의 광주·전남 지역 인사로는 김성중(광주시민협 대표) 김수복(광주지역 원로) 김용재(조선대 이사장) 김인주(무등산 대표) 김중현(전남시단체 공동대표) 김창섭(전 해남YMCA 이사장) 나간재(전남대 교수) 박경린(광주시민협 고문) 박두규(순천YMCA 사무총장) 서정훈(광주시민협 사무처장) 유한호(광주대 교수) 윤영선(전남시단체 사무처장) 윤장현(우리민족 돕기 광주전남 대표) 이근우(변호사) 임낙평(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최태욱(전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고문) 한경진(해남YMCA 사무총장) 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한화감의 눈물



임동욱

서울취재팀장

지난달 22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 야인으로 돌아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 연말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한 후배가 "민주당을 이끌며 고생하셨다"며 큰 절을 올리자 한 전 대표는 한동안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이날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민주당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의 우려를 반영하듯 최근 급류를 타고 있는 정계개편 논의에서 민주당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전 대표 퇴장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은 전당대회 개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현역 의원들과 당료들의 심각한 상호 불신은 민주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일부 현역 의원들은 비대위 구성에 소극적인 장상 대표와 일부 당료들에 대해 '한 줌도 되지 않는 기록'에 연연하고 있다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계개편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는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내 잠약력이 취약한 현역의원들의 무관심과 개별 행동이 이어지고,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원외 인사들의 과열 경쟁 등으로 오히려 내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의원들은 당 차원의 공식 논의없이 여당 의원들과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공동 모임'에 참여를 모색하는 등 '따로 국밥'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내 11석에 불과한 민주당이 정계개편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권 정당 창당을 요구하는 호남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 등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민심 이반과 함께 결국 소속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계개편의 원심력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의 눈물은 이같은 우려를 담고 있으며 민주당에는 그 어느때보다 내부 단결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tium@kwangju.co.kr

1975년 남북어부 지난 달 탈북

최욱일씨, 中서 부인과 상봉...“어서 고향갔으면” 호소

남북 어부 최욱일(67)씨가 31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남북자단체 관계자는 "1975년 8월 동해에서 남북된 천왕호 선원인 최씨가 지난해 12월 북·중 국경을 넘어 현재 연지(延吉)시에 머무르고 있다"며 "통일부나 선양 영사관에 이 사실을 알려 신변 안전과 조속한 귀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남한의 부인 양정자(66)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현지에서 31년만에 남편을 상봉한 뒤 지난 3일 귀국했다.

양씨는 또 "(최씨가) 아들·딸(1남3녀) 사진과 막내아들 필규(33)의 편지를 보더니 한참을 울더라"며 "중국에서 돌아오는 내게 '여기서 붙잡히면 죽는다. 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1979년 북한 여성과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며 함께 남북했던 천왕호 선원 박상원씨는 김책시에 살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왕호 선원 33명 가운데 지금까지 귀환한 경우는 지난해 입국한 고명섭(63)씨가 유일하다.

한편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4일 최씨의 한국행을 위해 중국측과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비상대책협의회 토론회 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비상대책협의회가 '2007년의 한반도를 보는 역사적 시각'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강영훈 전 총리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POWER SALE
2007.01.05(금)~01.21(일)

모런, 그녀가 있는 곳에 행운이 있다

영업안내 1/5(금)~7(일)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합니다.

Lucky New Year

요즘은 내가 가는곳이면 어디든 기분 좋은 행운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해도 어떻게 우리 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으로 출반하여 지금처럼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LifeStylist 현대백화점 HYUNDAI

SEASON OFF

트래디셔널 패션 그룹 브랜드 시즌 오프
(1/5~1/21, 일부품목 제외)

30%

빈폴진 2층	빈폴레이디스 3층	BEAN POLE
빈폴 5층, 5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북대지저금통 증정 (선착순 100명)		
폴로 5층		POLO
빈폴골프 6층	빈폴키즈 7층	BEAN POLE KIDS
써스데이아일랜드 40% 2층 (1/4~21)		Thursday Island
헤지스레이디스 3층 (05/12/29~1/21)		HAZZYS LADIES
헤지스 5층 (06/12/29~1/29)		HAZZYS
페리엘리스 5층 (06/12/29~1/26)		PERRY ELLIS NEW YORK

현금/카드/상품권 구분없이 당일 선착순 1,000명

당일 1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신년 福상품을 드립니다

마그진 1개

자연풍(세탁제) 1개 (주 1회)

등산용 배낭

출발기간: 1/5(금)~7(일) | 출정횟수: 8층 사은품네트

출발대상: 당일 12만원이상 구매하신분께 한하며, 연간 결산에 한하여 한도 가능합니다. 한 차례 행사만을 운영하며 중복받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은 선착순입니다. 당일 행사에 참여하신 고객은 100% 선착순입니다. 일부 품목은 선착순입니다. 일부 품목은 선착순입니다. 일부 품목은 선착순입니다.

문의처: 02-2200-1111